

"신행정수도건설 대책모색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각계전문가 참여/ 예정지역 정부매입부터 강조-

- 대전·충남·충북발전연구원 공동협약식도 체결-

신행정수도 위원판결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대전발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충북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11월 26일 오전10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 대책모색 전문가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신행정수도가 현재의 위헌 판결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갑성 교수(연세대)/ 최원희교수(공주대)등 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명래교수(단국대)등 8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앞으로 신행정수도추진방향 및 예정지역의 보상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김갑성교수(도시공학과)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발표문을 통해 앞으로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규제 철폐와 함께 신행정수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기간을 갖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을 들어보면 좋은 방안이 모색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 금융비용 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주대학교 최원희교수(지리교육학과)는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보상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보상대책의 전제는 기존 예정지역 2160만평에 대한 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보상대책 방안으로는 ▲입지적 탁월성에 대한 보상 ▲물질적·정신적 보상의 병행 ▲토지,물건,권리, 및 생활에 대한 일반보상 및 특별보상 ▲맞춤형보상 및 생애적 보상 ▲주민참여형 보상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3개 시도연구원은 공동협약식을 갖고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연구팀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을 위한 충청권 시도연구원 공동합의문

국제사회는 무한한 경쟁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이 골고루 역할과 잠재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이것은 과거의 서울집중과 중앙집권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방분산과 지방분권의 국가운영구조로 나가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서울 중심의 수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지방살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며,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이 같은 기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없이는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과 중앙의 일극집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지역이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이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공동 합의키로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연구역량을 결집한다.
1.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팀을 구성 운영한다.

2004년 11월 26일

대전발전연구원장
박 광 섭

충북개발연구원장
이 태 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태안군의 발전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태안군 관광 등 발전방향 제시 -



충남발전연구원(원장·김용웅) 과 태안군(군수·진태구)은 12월 21일 오후2시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충남발전연구진과 박동윤 도의회의장/가기순 군의회의장/시민단체 대표/공무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해안시대 관광중심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안군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관광문화 및 웰빙시대를 맞아 태안군의 대응방안과 발전과제를 모색하고 각종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뜻깊은 토론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태안군지역 도의원/군의원 등 지역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대거 참석, 지역의 당면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충남발전의 이충훈연구위원(산업디자인팀장)은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이인배연구위원(경제·관광연구부장)은 "이원간척지를 활용한 엑스포 개최방안"에 대해 한상욱·조봉운 책임연구위원(도시·지역연구부)는 "관광태안의 경관관리 방안"에 대해 박철희책임연구위원(도시·지역연구부)

는 '태안 해안웰빙시티 발전방향'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이용희 군의회부의장·정지근 군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의원들은 지역현안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이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태구 태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태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관광'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출발연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일보한 '관광 태안'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태안군은 앞으로 관광문화와 여가문화의 교류 중심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오늘 나온 각종 아이디어와 토론내용은 태안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정책토론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